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권율 부연구위원
2. 출장기간: 2007년 7월 22일(일) ~ 7월 28일(토)
3. 출장지: 베트남(하노이), 인도네시아(자카르타)
4. 출장목적: 연구보고서 "한국의 주요국별-지역별 중장기 통상 전략: 아세안-대양주편" 관련 현지조사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7. 22(일)	하노이	- 이동(인천→하노이)	
7. 23(월)		- 베트남 투자계획부 외국인투자청 방문 - 베트남 외교부 동북아국 방문 - KOTRA 하노이 무역관 방문	
7. 24(화)		- 베트남 세계경제연구소 방문 - 사회과학원 동남아시아연구소 방문 - 한국국제협력단 하노이사무소 방문 - 신한비나(SVB) 은행 방문	
7. 25(수)	자카르타	- 이동(하노이→자카르타)	
7. 26(목)		- 아세안 사무국 경제협력국 방문 - 아세안 사무국 대외협력국 방문 - 한국국제협력단 자카르타 사무소 방문	
7. 27(금)	인 천	- 수출입은행 현지사무소 방문 - 쌍용건설 자카르타 지사 방문 - 이동(자카르타 출발)	
7. 28(토)	인 천	- 이동(인천도착)	

Ⅲ. 활동 내용

1. 베트남

- ☐ 베트남의 경우 ASEAN 10개국중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비중있게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의 주요 부처 및 진출기업을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 및 주요 자료 수집
 - 특히 WTO 가입이후 투자환경 변화와 금융 및 서비스 시장동향을 중점조사하고, 중장기 진출전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현지조사 추진
- ☐ 베트남은 최근 WTO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,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외자유치에 기반한 대외개방정책을 확대
 - 2006년 7월 내·외국투자법을 통합한 신투자법을 발효,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권역별로 연계된 투자유치정책 강화
 - 2010년까지 연간 8% 이상의 고도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인 행정개혁, 투자활동 확대, 기간산업 육성 등 경제정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추진
- ☐ 특히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비효율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,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주식화 촉진
 - 당초 60여 기업에서 최근 상장기업이 210개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의 과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는 월교 및 펀드자금이 집중되고, 주식담보대출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임.

- 주목되는 것은 국영은행 민영화도 본격화되어 비에트콤뱅크, 투자개발은행 등이 금년 하반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나 세부기준 및 지침이 미비되어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.

□ WTO 가입이후 투자환경의 변화는 기업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에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.

- 과거 독소조항이던 만장일치제는 폐지되었으나, 중요 결정사항에는 아직 75% 수준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

- WTO 가입으로 서비스 및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외자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. 이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진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.

- 금융 및 외환시장의 경우 베트남은 아직도 금리가 9% 수준이어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소기가 크고 환율변동성에 의한 외환시장 불안정의 위험요인이 큼.

□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과의 정치·경제적인 우호협력관계가 지속되면서 상호 경제협력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.

- 베트남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고 앞으로 8% 수준 이상의 고도성장 국면이 지속되고, 2010년을 전후로 중궤 정유시설이 완공되는 등 대내외적인 성장기반 확충으로 동남아 국가중에서 가장 큰 기대가 예상됨.

- 우리나라의 진출기업은 아싱에서 중국 다음으로 활발한 투자진출이 이루어지고 베트남에서도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순위는 지난해 1위를 기록한 바 있음.

- 동남아 국가중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아 이러한 진출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베트남 전용공단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으나, 중장기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원조자문그룹(CG)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관심과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의를 통해 국제적 원조가 공여되고 있음.
- 한국의 경우에도 대사관, KOICA, EDCF 등이 공동으로 정책대화를 강화하고, 중장기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음.

2. ASEAN

- ASEAN의 역내 경제통합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어 최근 논의 동향과 향후 진로를 조사하고자 ASEAN 사무국을 방문하여 경제통합국 Lim Chze Cheen 부국장과 대외협력국 Anish Kumar Roy 국장, Dedy Wiredja 팀장을 면담함.
- 최근 논의 중인 ASEAN 경제공동체 추진계획과 ASEAN 헌장에 대한 주요 추진 배경과 내용을 조사하고, 역내 개발격차사업과 ASEAN 개발기금에 대한 ASEAN 사무국의 구상을 논의함.
- 그동안 ASEAN은 협의(consultation)와 합의(consensus)에 의존해 ASEAN way라는 독특한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사실상의 만장일치제와 상호내정불간섭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지역통합체에 머물러 왔음.
- 그러나 2007년 1월 세부에서 개최된 제12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공동체(ASEAN Community) 실현목표를 2020년에서 2015

년으로 앞당기고, 본격적인 지역통합을 위해 ASEAN 헌장(ASEAN Charter)을 마련기로 결정함.

- 이와 관련 ASEAN은 현인그룹(Eminent Persons Group)이 채택한 보고서를 승인하고, 향후 지역통합체로서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규범과 주요 정책을 제안한 바 있음.

□ 특히 ASEAN 사무국은 ASEAN 경제공동체(AEC)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, 단일생산기지, 자본자유화, 지원부문 활성화 등 주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, 경제통합을 가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중임.

- 이를 위해 우선통합분야(Priority Integration Sector)로 농업, 임업, 고무, 섬유, 자동차, 전자, 어업, 보건, E-ASEAN, 항공, 관광 등을 선정하여 단일생산기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경제통합을 확대하고 있음.

□ 그러나 ASEAN 경제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내 개발격차로서 ASEAN 회원국간의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인적자원 개발, 정보격차 해소, 메콩강 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왔음.

- 그중에서도 ASEAN 통합이니셔티브(IAI)와 같은 역내 후발국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도 했으나, 앞으로는 ASEAN 개발기금(ADF)을 조성하여 역내 개발격차 완화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음.

- ADF는 일종의 Trust Fund로서 2005년 7월 38차 ASEAN Ministerial Meeting(AMM)에서 결정되어 ASEAN의 기존 회원국이 백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, 호주, 인디아, 일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.

□ 자카르타에 소재하고 있는 ASEAN 사무국 방문후 현지 KOICA와 수출입은행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재 추진중인 개발원조사업의 추진 방향과 인도네시아 원조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함.

- 금년 초 유도요노 대통령이 그동안 세계은행이 주관해 오던 원조자문그룹에 의한 지원국회의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고 양자 방식으로 원조사업을 추진기로 결정하여 개발협력사업 추진체제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.
- 이와 같은 원조사업 추진체제 변화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계획청인 바파나스가 주요 사업을 책정하면 최종 지원사업은 재무부에서 결정케 하여 원조사업의 주도권(ownership)을 강화
- 한편 현지 건설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쌍용건설은 아체 지역의 USAID 원조사업을 수주, 1억 달러 규모의 도로사업이 쓰나미 복구사업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.